

박 용 석

박용석은 현대의 도시공간을 탐색하며 그 속에서 목격되고 경험되는 풍경과 현상에 대하여 작업해 오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규범에 의해 관습화된 도시모습과 그로 인해 소비되고 버려져 방치되는 것들, 혹은 그것의 이미지들을 작품의 재료로서 수집한다. 작가는 사진, 설치,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다.

암사아파트-풍경, enamel paint on panel, 2000

암사아파트는 서울 도시의 빠른 팽창 속에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곳 중에 하나이다. 공사장 주변에 포스터와 광고 전단지 등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다시 구성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옥상에서 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그림을 관람한다. 난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 재배치 과정 속에 풍경과 생활의 변화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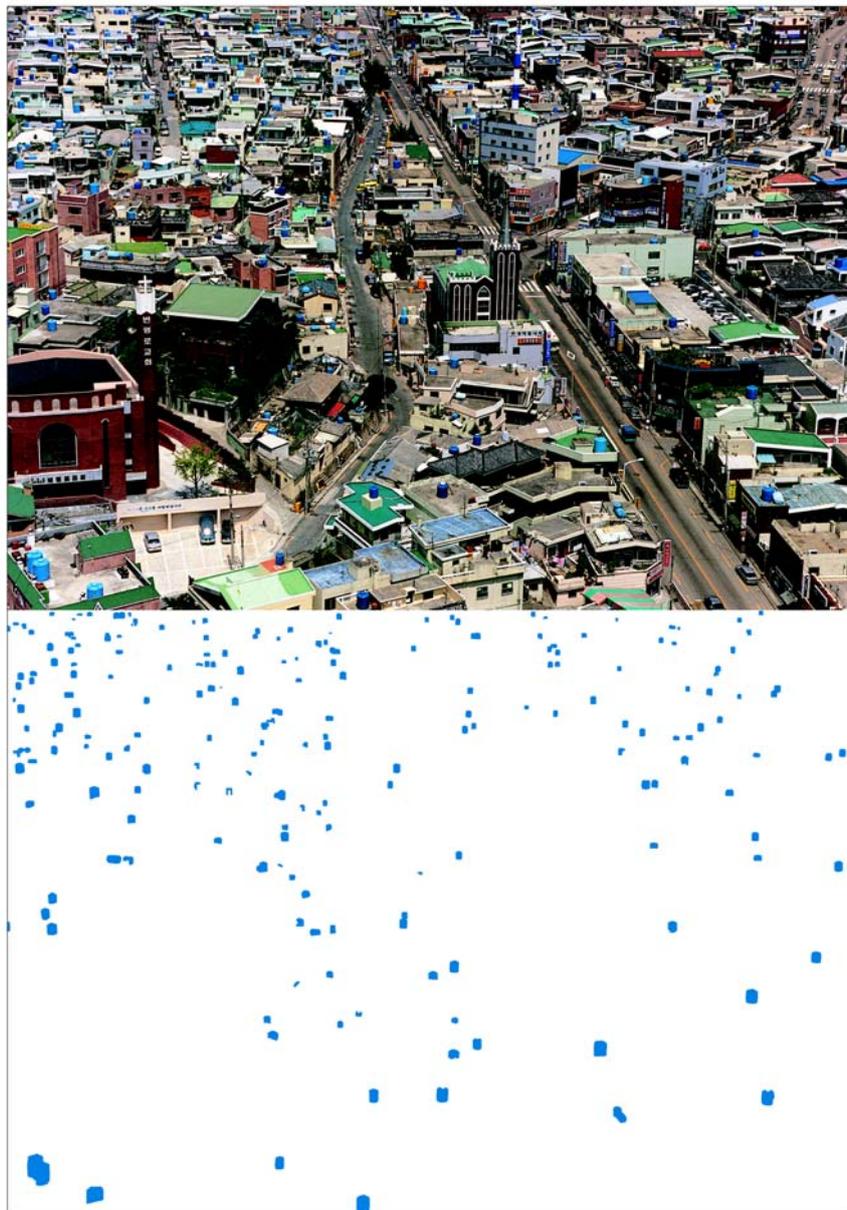
서울모더니즘, c-print and drawing, 150x103cm, 2001

서울 대부분 다세대 주택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다. 물이 부족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물탱크는 모두 노란 색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왜 물탱크를 노란 색으로 칠해야 하는지는 공장에서조차 알지 못한다. 의례 노란 색 물탱크가 많았기에 서울 물탱크는 노란 색으로 칠하고 있으며 이제 서울의 노란 물탱크는 도시 그리드에 하나의 좌표처럼 옥상에 놓여있다.



부산모더니즘, c-print and drawing, 150x103cm, 2001

부산의 물탱크는 대부분 파란색이다. 노란색에 비해 세균을 억제한다고 해서 칠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바다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웃어 보인다. 서울과 부산의 물탱크 색은 지역적 관습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도시가 지닌 숨겨진 제도(hidden system)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녹색드로잉, drawing on water tanks, 2000~

버려져 있는 옥상은 도시민에게 예전의 마당을 대신한다. 장독대가 있고 빨래를 말리고 화단을 만들어 휴식을 취한다. 난 이곳 물탱크에 그림을 그린다. 이 작업의 과정은 가정집을 방문하고 주위의 공간을 관찰하거나 거주자와 옥상에 관한 대화를 하며 필요에 따라 어울리는 그림을 구상하고 그려준다. 개인적인 사연을 담은 그림을 그릴 때도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옥상이란 공간이 사적 공간이자 동시에 공유의 공간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옥상은 도시의 환경 자체이며 또한 사적 사연을 담고있는 공간으로서 도시와 대화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옥상 물탱크에 그림을 그려 드립니다

Call: 017-354-8428

경동빌딩 옥상, c-print, 2000~2004

경동빌딩에 사는 부부는 마당이 없다. 그래서 옥상을 마당으로 개발한다. 커다란 밭을 만들고 채소와 화초를 가꾸며 이웃을 모아 잔치를 벌인다. 옥상은 마당의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그 구조를 변해간다. 이 다큐멘터리 사진은 전원에 살기를 염원했던 부부가 옥상을 작은 밭으로 가꾸어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제 옥상은 부부의 방이며 사적인 마당이며 또한 환경이 되었다.



자리 배치, installation, 2001

이 작업은 정독도서관 휴게실의 자리 배열을 바꾸는 것이다. 휴게실은 도서관 열람실처럼 일렬로 배열되어 모두 한 곳만을 쳐다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기존에 있던 좌석과 화분의 자리를 재배치하여 다양한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before



after

거기를 어떻게 가야하지?, Chinese ink on Han Paper, 2002~

나는 모르는 길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약도를 그려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선과 글씨로 그려준다. 제한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 실제로 먼 곳도 바로 옆에 있는 듯이 그려지고 굉장히 복잡한 길도 간단한 선 하나로 해결되기도 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 찾아가 보지만 객관적인 지도와는 댄판인 그림을 받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지도는 자신의 관념과 습관에서 기억된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도시의 개념적인 풍경화로 보였다. 이 작업은 서울과 프랑스를 돌아다니며 진행되었다.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하나요?”라는 질문의 행위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분 배달, DV6mm video (6' 40"), pot installation in apartment, 2002

나는 서울 주변에 버려지거나 쓰지 않는 화분을 수집한다. 그렇게 수집된 화분을 수선하고 분홍색으로 칠하여 부산에 아파트로 배달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화분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각자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되고, 베란다에 놓여져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 되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제안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있으며 쓸모 없어진 화분이란 오브제를 매개로 이뤄지는 사소한 만남을 관찰한다. 이 작품은 부산 비엔날레에 상영되었는데 미술관 창 너머에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나는 미술관이 세상 밖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작업을 진행하였고 거대한 아파트 장벽이 또 다른 캔버스로 역할하기를 시도한다.



도시 안에 도시, digital print, 2003

'도시 안에 도시'시리즈는 도시 속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도시 이름들을 찾아 관광 엽서와 포스터로 만든 작업이다. '뉴욕 조명', '런던 단란주점', '시드니 모텔', '동경 약국', '홍콩 노래방' 등 도시의 이름은 각 도시 속에서 새로운 상징을 지니며 자리하고 있다. 즉 도시의 이름은 다른 도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도시 이름의 상징을 통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의 정체성을 엿 보고자 한다.



어느 날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가보지 못한 곳, digital print, installation, 2003

'어느 날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가보지 못한 곳'은 작가가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 무의식 중에 교환하게 되는 라이터를 수집한 작업이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제 과음을 한 탓일 겁니다. 술에서 깨어 다시 옷을 입습니다. 주머니 속에 무언가 있습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것이입니까?'라고 적은 작업 노트에서처럼 광고를 위해 상점의 이름이 인쇄된 라이터는 서로의 만남 이후 남겨진 물건들이며, 주인 없이 서로 교환되고 끊임없이 유행처럼 떠돌아다니는, 도시의 장소들이나 것이다.



안녕 의자, mixed media, 320x160x50cm, 2004

한국말 '안녕'은 영어 Hi 와 Bye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단어이다. 나는 이 의자 조각을 공원에 설치하여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로 사용되길 바란다.



비둘기, DV6mm video(22' 25"), 2004

'비둘기'는 비둘기에 관한 기억을 고백하는 다큐멘터리이다. 나는 시나리오 없이 따로 두 사람을 인터뷰하고 이 소리를 서로 대화 나누듯이 편집하였다. 각자 비둘기에 대한 기억을 고백하며 자연스레 자신이 체험한 도시 이미지와 사건들을 묘사하게 된다. 유학생활을 하며 겪은 외로움, 학창시절 선생님과 86년 아시안게임 행사, 사기사건, 연애 이야기 등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에서 유랑생활 하는 방랑자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다.

비둘기를 생각하면 흔히 평화의 상징을 떠올릴 것이지만, 실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혀 반대의 경험들을 말하곤 한다. 대화의 내용들은 생각해보면 우울하고 외로운 상황들의 심리적인 고백들이고, 자신이 살아온 도시 풍경의 묘사나 기묘한 사건들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비둘기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새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둘기 인터뷰에 참여한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 없는 인물이다. 나는 이것을 스테레오 채널에서 나누어 편집하였는데, 각자 횡설수설 하듯 기억하는 내용들은 전혀 딴소리처럼 들리다가 어느 순간 비슷한 내용을 말한다. 잠시 대화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여전히 그들은 혼자 독백하는 것이다. 예기치 않게 엮나가는 우리의 생활들처럼 말이다. 나는 비둘기라는 매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풍경들을 묘사하며 그 내면에 담겨있는 도시민의 심리적 불안감과 희망, 외로움과 그리움을 그려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님 달님, DV6mm video(16' 7"),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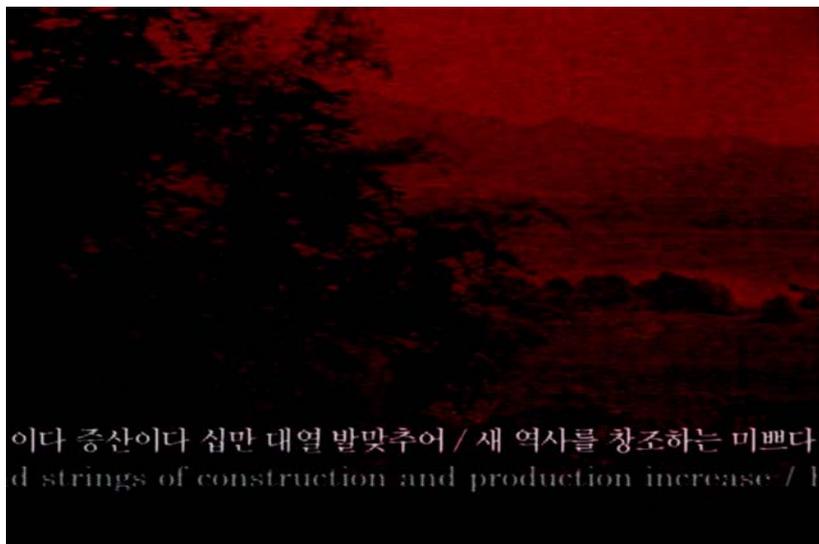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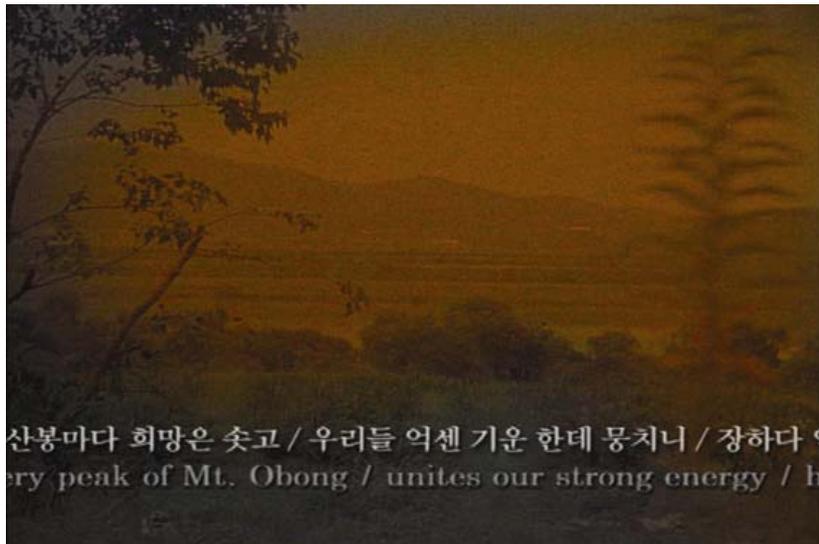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구전동화 '해님 달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새롭게 편집한 이야기이다. 옛날에 '연오랑', '새오녀' 그리고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떡을 팔러 시장에 다녀오다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고 아이들도 호랑이의 위협을 받지만 결국 도망쳐 하늘나라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사람들마다 다른 줄거리와 해석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묶어 새로운 '해님 달님'이야기가 만들어 진다.

어느 날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해님 달님 얘기가 어떻게 되었더라?'라는 질문을 던지니 답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해님 달님'에서 갑자기 '제크와 콩 나무', '빨간 망토' 등의 동화와 섞이기도 하고, 일부분만 기억되어 공포장르나 가족의 사랑이 담긴 얘기가 되기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나는 하나의 구전동화가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원작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구전동화는 그 시대에 따라 변형되고 창조되어 왔으며 그것은 오늘날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지 않는 땅, 16mm film(6'), 2006

충남 연기군 남면 장남평야 이곳은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복판이 될 예정지역으로 200만평의 평야는 아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다. 이 영상에 나오는 텍스트는 연기군의 노래 가사이지만 주민들은 불러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거리의 의자들, Installation, 2005

의자는 제작되기 전 이미 놓이는 공간과 용도, 사람의 계층까지를 고려하며 만들어 진다. 하지만 의자들이 낡아 길거리에 버려지면 그 지위는 사라지고 단지 의자라는 물건으로 돌아간다. 작가는 길거리에 버려진 의자를 돌아다니며 수집하고 옥상에 의자공원을 만들었다. 제목 '거리의 의자들'은 '거리의 여자들'을 연상하며 지었다 한다.

서로 다른 용도에서 사용되었던 의자들이 옥상에 군집된 모습은 옥상의 성격처럼 무 계층적인 현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화상(2007.11.9~2008.1.22), installation(leftover objects), c-print,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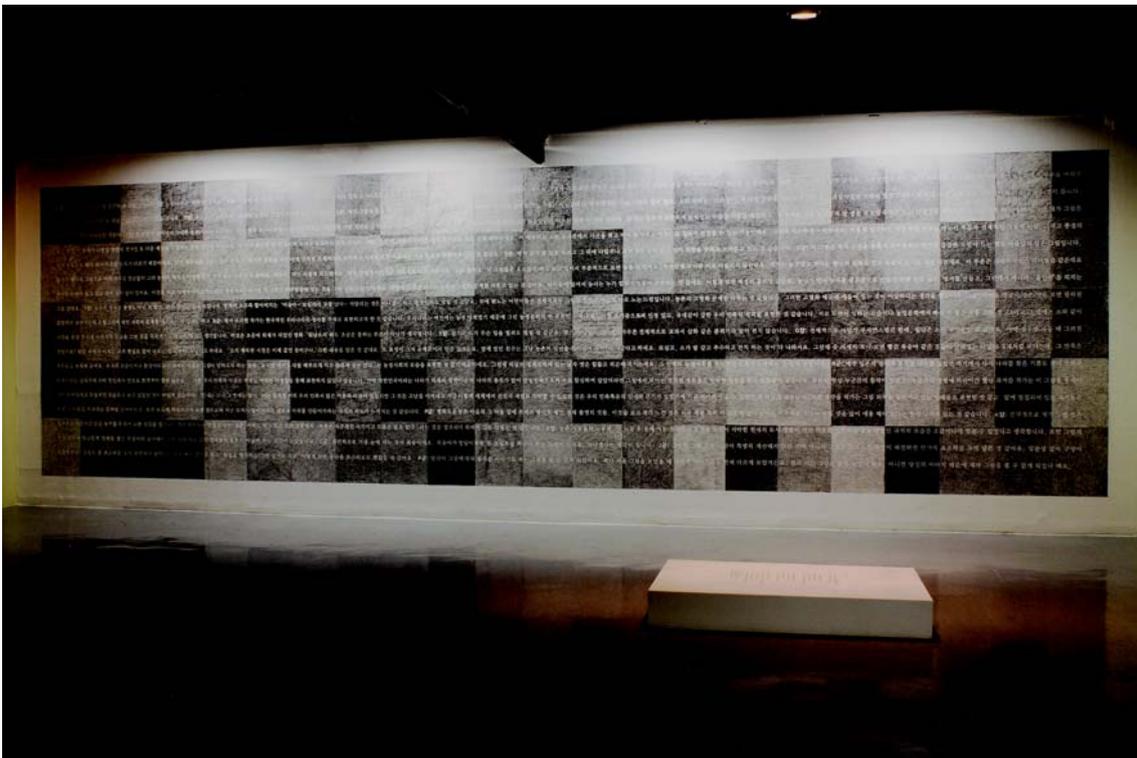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Old Fluorescent Bulbs, 2007

나는 철거 예정인 아파트와 건물, 다세대 주택들을 현대에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한시적이지만 비어있는 공간을 만나며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도시의 명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 작품의 제목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는 건축 공사장에 걸려있는 현수막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시장에는 철거된 곳에서 가져온 형광등이 전시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하지만 형광등은 전시기간 내 수명을 다하면 하나씩 꺼질 것이다.) 사라져 버릴 빛을 모아 너무나 밝게 비추는 빈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도시의 지금, 한 찰나를 대면하는 곳이다.



독해 드로잉, 4B pencil on the ARKO Art Center wall, 2009

<독해 드로잉>은 하나의 기준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독해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작업은 아르코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신학철작 <모내기>를 다시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작품 해석에서 논란이 되어 정부로부터 압수되었고, 지금은 해석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작업 <독해 드로잉>은 <모내기>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들의 감상을 모아서 그 글들을 미술관 벽에 시트지 커팅으로 부착한다. 그리고 글의 배경을 각자 기준의 명도 80%로 드로잉 한다. 드로잉이 끝나면 미리 부착된 시트지 커팅을 떼어내어 감상의 글들이 보이게 된다. 이 작업의 과정은 결국 미술관이 다양한 '독해를 드로잉하는 벽'임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드로잉 퍼포먼스이다.



테이크 플레이스, HD Video(17'33"), 2009

<Take Place>는 2008~2009년간 제작된 5개의 시리즈 작품으로 공간의 정체성이 육체의 '활동'을 통해 등장하게 된다는 퍼포먼스 영상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된 <Take Place>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뜻과 '장소를 가지다' 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장소란 몸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등장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 역시 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의 배경은 도시 재건축을 위해 지금은 사라져 버린 '골프연습장', '동대문운동장', '현저동 무허가집촌', '배다리 지역', '아현동 주택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영화는 마술 같은 이미지의 합성과 기존 영화에 대한 오마주, 사운드의 실험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건축이란 장소에서 시작된 도시의 질문들을 결국 우리의 존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로 풀어내고 있다.

